

피복개선 관련 노사합동 실태조사 피복착용 실태조사 및 개선관련 의견수렴목적

노사는 2003년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후속조치로 피복개선 관련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노사는 2003년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에서 복제개선(작업복, 여직원복)은 2004년중 노사합동 실태 조사후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을 별도 협의하기로 한바 있다.

또한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피복개선 관련 좋은 아이디어나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지부장을 통하여 지방본부로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04.9.8 ~ 9.15(6일간)
- 조사기간 : 지역본부별 지사/망운용국 각 1개 기관
- 조사목적 : 피복착용 실태조사 및 개선관련 의견수렴
- 조사내용
 - 현행 피복 착용시 불편사항
 - 복제 개선시 반영할 의견
 - 직무 환경변화에 따른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변경 필요성
 - 기타 개선 의견 등
- 조사팀 : 노사합동 2개팀 구성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할 역량강화 교육의 주요 내용은 간부 자세 의식교육, 임금 및 복지현황 교육, 산재처리 방법 및 대응, 정책과제 및 진행사항 공유 등의 교육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로 현장에서 조합간부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내용들로 진행 될 예정이다.

- 교육일시 : 2004년 10월 4일(월) ~ 10월 15일 (금)
- 교육장소 : 대전시 유성구 유스호텔
- 교육방법 : 전국 지,분회장 및 비전임 국장들을 6기수로 나누어 1박2일씩 집체교육(1기당 지분별 인원 최소 2명~12명)
- 복무협조사항 : 중앙에서 일괄처리
- 참석자 준비사항 : 투쟁복, 개인세면도구, 운동화
- 교육강사 : 중앙본부 정책실장,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정책1국장, 조직2국장, 복지1국장

★각 지방본부에서는 9/14(화)까지 각 기수별 참석할 조합간부 명단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IT 노동조합연맹 사무실 개소식

21세기 정보통신산업을 이끌며, IT산업노동자들의 구심점으로서 노동자의 권리향상과 올바른 통신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30일 출범된 전국IT노동조합연맹이 사무실 개소식을 7일 16시에 가졌다.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지재식위원장은 개소식 행사 인사말을 통해 “민주노총의 막내로 출범한

전국 지,분회장 역량강화 교육 실시

8대 집행부의 2004년 하반기 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기본 운영 학습과 올바른 조합간부 자세 확립과 의식함양을 위한 전국 지,분회장 역량강화



IT연맹은 민주노총 산하 연맹으로서의 본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IT산업노동자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꾀하며 나아가 이땅의 모든 노동자 민중과 연대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자주적이고 진정으로 민주적이며, 남북이 하나되는 통일조국의 완성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밝혔다.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은 “IT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IT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IT연맹으로서 위상을 지켜달라”며 축하의 인사말을 남겼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IT 연맹 사무실 개소식에는 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 및 임원단, 민주노동당 이용식 최고위원 및 관계자, SKT김덕철 위원장 등 정보통신노련 산하 조합간부 등 100여명이 넘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였다.

전국 상집간부 극기훈련 실시

중앙상집을 비롯한 전국 전임 상집간부들이 2003년 중앙상집 극기훈련에 이어 올해에는 전국 상집간부들까지 극기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오는 16일(목)부터 2박3일간 지리산 종주를 통해 2004 하반기 사업승리 결의와 조합간부간 단결력과 조직활성화를 목적으로 극기훈련을 갖는다.

다음은 극기훈련 주요 내용들이다.

-2004 전국상집간부 극기훈련-

◇**행사일정**: 2004. 09.16(목) ~ 18(토) [2박 3일]

◇**참석대상**: 중앙본부, 지방본부 전임 상집간부

◇**산행장소**: 지리산 종주

◇**극기훈련 일정**

○집결: 지리산 수련관 9월15일(수) 18:00 (석식, 자율 입소)

○16일 04:00 기상(조식 및 출발준비)

○16일 05:00 출발(성삼재 버스이동 약 30분 소요예상)

○18일 14:00 중산리 매표소 도착(수련관 버스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예상)

◇**산행코스**:

(1일차):성삼재 →노고단 →임걸영→화개재→연화천→형제봉→벽소령

(2일차):벽소령→선비샘→칠선봉→세석→춧대봉→장터목

(3일차):장터목→천왕봉→천왕샘→법계사→칼바위→중산리 야영장

◇**취침 및 휴식장소**: 벽소령, 장터목대피소

산업 안전 건강검진도 습관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가장 절실한 주제다. 무엇보다도 건강할 때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건강 관리 지침은 생활습관을 바르게 교정하는 것. 그러나 건강은 관리만 잘 한다고 해서 자신의 신체 상태를 확신할 수 없다.

바른 생활습관 실천과 함께 규칙적인 건강 검진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완벽한 관리가 가능하다. 간혹 건강을 과신하다가 예기치 않은 질병 선고를 받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 건강 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그 발생 시기를 늦추고 합병증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필요한 항목만 받자

값비싼 검진을 무턱대고 다 받을 필요는 없다. 정기 검진을 습관화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지나치면 건강 염려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의료기관을 찾아가 돈을 내고 받는 검진들은 대부분 고가의 정밀 검사. 대형 종합병원들은 10여개 검사 항목의 40만원대부터 120여개 항목의 200만원대까지 다양한 종류의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종합 검진으로 암이나 성인병 정도를 찾아낼 수는 있지만 모든 질병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턱대고 ‘패키지형’ 종합 검진을 받기보다 전문의와 함께 개인의 생활습관, 위험 인자, 건강 수준 등에 대해 상의한 후 자신에게 필요한 검사를 선택해서 받는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좀 더 실속있고 효과적”이다. 정기 검진을 받고 있을 경우 같은 검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번 검진 결과를 기억해 두거나 결과지를 챙겨뒀다가 병원측에 미리 전달하면 경제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정기 검진을 받는 병원을 정해 두면 검사 기록이 누적되어 질병 예방, 조기 진단과 치료, 생활의 질 개선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검사는 스스로 챙겨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란 정기 검진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 검진은 평소 체력 저하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30대 이후부터 갑상선 이상 및 혈압, 대변 검사, 자궁경부세포진검사(여성), 위내시경 등은 매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사망률이 높은 순환기병이나 암 등의 발생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20~30대의 건강 수치가 40~50대의 건강을 좌우한다.

음주, 흡연을 하거나 비만인 사람들은 혈압, 혈당, 간초음파 검사를 통해 건강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간경화나 간암 등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이미 간염을 앓고 있거나 간염 보균자라면 6개월에 한번 이상 정기 검사가 필요하다.

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가능성이 높다. 평소 위가 약해 만성 위염 혹은 위궤양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위 내시경이나 종합적인 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10~20년 이상의 장기 흡연자라면 폐암 검진은 필수. 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저선량 CT’는 기존 CT에 비해 방사선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폐암 발견에 효과적이다.

주부들은 짬을 내서 정기 검진을 받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자궁 경부암, 유방암 등 각종 부인암에 노출되기 쉬운 기혼 여성은 자궁과 난소 등에 관련한 세포진 검사, 질확대경 검사, 인유두종(HPV) 검사와 유방 촬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유방암은 실제 암이 있는데도 검사상 정상으로 판정될 수 있는 비율(위음성율)이 30~40%나 된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6~12개월 간격으로 유방 촬영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에 신경써야 한다. 그밖에 폐경을 겪었거나 운동이 부족한 여성은 매년 골밀도 검사가 권장된다.

[출처 : 국민일보 2004-09-06]



[출처 : 노동조합계시판 2004.09.06]

이제 명퇴이야기는 그만했으면 합니다. 조합에서도, 회사에서도, 특히 직원의 관심사입니다만, 좋은 기회가 있겠죠. 때를 기다리시고 조용히 그리고 열심히 업무에 충실 합시다.

명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 또

4주간KT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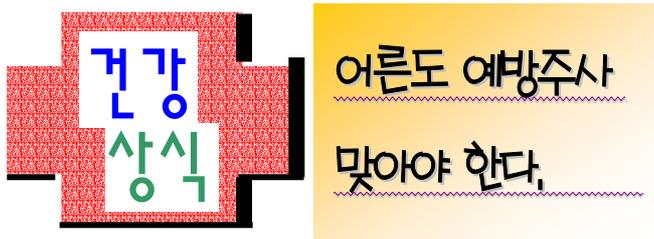
한 많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조건이 좋다면 하시는 겁니다. 또 명퇴해서 특별히 계획이 없으신분은, 여론을 선동하는것 또한 좋은 인상이 아니고요. 개인의 큰 신상의 변화의 시점에서 보면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회사에 몸담고 있는 한 기업의 매출증대에 힘써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마케팅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도 다방면으로 사업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영자나 직원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갈 동반자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일해봅시다.



[출처 : 연합뉴스 2004-09-03]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병.의원을 찾게 된다. 흔히 예방접종하면 어린이에게만 해당하는 일로 여기거나 노인들의 독감예방접종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인도 예방접종을 해야만 한다. 모든 성인이 예방접종의 대상은 아니지만 각 질병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때에 예방접종을 받아야한다.

유행성 질병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대상, 방법 등을 살펴본다.

■ 성인예방접종의 접종대상자 및 접종방법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예방접종으로는 간염,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풍진, 파상풍 등이 있다.

바이러스성 간염은 A형, B형, C형, D형, E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만성 간염과 간경화증, 간암으로 발전될 확률이 높아 예방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B형 간염 접종 대상으로는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이나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 주사용 약물 중독자, 의료기관 종사자, 수용 시설 수용자 및 근무자 등이다.

3회에 걸쳐 접종해야 하며 첫번째 접종을 받은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여섯 번째 달에 접종하거나 3개월 연속 접종하는 방법이 있다.

임신부가 B형 간염 보균자인 경우 신생아에게 감염될 위험이 높다. 신생아때 감염되면 성인기에 감염되는 것보다 만성간염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 성인이 된 후 간 경화나 간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모든 가임여성은 임신 전에 미리 간염예방접종을 통해 간염항체를 보유하도록 한다.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유행성 출혈열은 고열, 신부전, 출혈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열성질환으로 지역적, 직업적으로 유행성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지역적으로는 환자의 70% 이상이 농촌에서 발생하며 직업적으로는 야외에서 일하는 군인, 농부, 공사장 인부, 캠핑하는 사람, 낚시꾼 등에게 주로 발생한다.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들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해마다 발생률이 다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보통 건조하고 추운 11월 말에서 다음 해 4월 사이에 유행한다. 통상 2월이나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정상인이 인플루엔자 때문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65세 이상의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은 입원 또는 사망

이 정상인의 수십 배 이상이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이 질환으로 사망위험이 높은 사람들(심혈관계나 폐의 질환을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성인, 만성적 질환으로 입원 중이거나 요양소에 수용 중인 사람, 65세 이상의 남녀, 당뇨 등 대사이상, 신부전, 면역억제 상태의 환자)과 이들 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극 권유되고 있다.

폐, 심장, 신장, 간질, 당뇨병 환자나 65세 이상의 노인 등은 늦어도 인플루엔자 유행 2주 전에 접종을 받아야 한다.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면 항체가 2주 이내에 생기기 시작해 4주가 되면 최고치에 달하게 되고 이것이 약 6개월 정도 예방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감예방주사는 대략 9~10월 사이에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이전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받고 심한 과민반응이나 신경이상을 보인 사람은 접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임신부의 경우 인플루엔자 합병증의 위험인자가 있으면 접종이 필요하지만 위험 인자가 없는 임신 초기에는 태아 이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접종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티푸스는 환자 또는 보균자의 대변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염된다.

장티푸스균은 생존기간이 비교적 길고 추위에도 강해 위생상태가 나쁜 지역에서 유행이 계속된다.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파병되는 군인, 간이급수시설 지역 중 불안전 급수지역 주민, 집단급식소 종사자,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 등이 접종 대상이 된다.

1회 주사만으로 4주에서 최소 3년간 방어항체가

유지된다. 파상풍 예방접종은 영아기에 DPT로 기본 접종과 추가 접종을 완전하게 마치는 것이 편리하다. 흙이나 가축과 접촉하는 노동자, 정원사, 경찰관, 소방수 및 군인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상풍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사망이나 신경계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 질환이다.

따라서 어른들도 10년마다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최근 5년 이내에 외상으로 응급실이나 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TIG라는 주사를 맞은 경우에는 최소한 5년 후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풍진은 발진성 급성피부 질환을 동반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홍역과 비슷 해서 붉은 발진이 얼굴과 머리, 몸 전체에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치유되는 일과성 질환이기도 하다.

보통은 큰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만 임신 초기 임신부가 이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태아는 일생 동안 기형을 가지고 살게 되므로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풍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풍진 예방접종은 1회 접종이라 한 번 맞으면 그 효능이 평생 지속된다. 그러나 접종 후에 3개월 이내 임신하면 태아에게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임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예방접종 주의사항.

예방접종 후에는 약간의 미열, 접종부위의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접종 당일에는 안정을 취하고 목욕, 수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접종 부위를 긁거나 만지면 덧날 수 있으므로 만져서는 안된다.

현재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설사, 피부병이 있는 사람, 접종 1년 이내에 경련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 후 경련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 사람, 임신부 등은 예방접종을 피해야 한다. 홍역, 볼거리, 수두 등을 앓았던 환자들은 2개월이 지나면 접종할 수 있다.

주말에 떠나는

문화체험

정선으로의 주말

동굴 여행

[출처 : <http://www.darotv.com>]

가을에는 길들여진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무심결에 스쳐갔던 횡단보도 옆 나무 한 그루도 그렇고 매일 마주치는 동료의 양복색도 그러하며 가끔 올려다 본 범상해진 하늘빛도 그렇다.

계절의 깊이가 모든 것들에게 그윽한 향과 성숙이라는 저마다의 색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짜릿한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계절에 어디론가 떠날 수 있다는 건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맑은 내와 청아한 산이 아리랑 선율에 깊은 '한'이 되어 숨쉬고 있는 고장 정선은 계절이 부여해준 나만의 색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아닐까?

일백번 굽이쳐 흐르는 냇물이요, 천층으로 층계된 절벽이로다.

예로부터 영월, 평창, 정선은 영평정이라 하여 산다삼읍의 오지로 불려왔다. 이 중에서도 정선은 교통이 불편한 곳으로 유명하다.

그 덕택인지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이 지금 까지도 그대로의 싱싱함을 가지고 있다. 강을 끼고 전개되는 좌우의 비경을 보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정선 소금강이다.

화표주와 삼형제바위, 소금강, 물운대 등의 절경을 가슴에 품고 있는 이곳은 온통 기암절벽, 괴석, 단풍등이 소금강계곡과 어우러져 운치있는 경관을 제공한다.

소금강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바위가 병풍처럼 양쪽으로 나란히 세워 뒤편에서 나간 듯한 경관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물운대다. 구름도 아름다운 경관에 반하여 쉬어갔다고 하는

물운대 절벽 아래에는 수백명이 쉴 수 있다는 넓은 반석이 펼쳐져 있고 주위에는 여린 물살들이 살포시 반석들을 어루만지고 있다.

- 특이한 맛의 화암약수와 금에 대한 모든 것 화암동굴

화암약수 역시 정선8경 중의 하나로 그림같이 아름답다는 그림바위와 수려한 경관을 가진 산이 있으며, 그 산속에서 바위를 뚫고 신비스럽게 샘솟는 화암약수터가 있다. 이 약수는 신비스러운 맛으로 유명한데, 철분이 많아 샘이 모두 빨건 녹물로 물들어 있으며 탄산 함유량이 많아 시원한 사이타를 마시는 느낌이다.

위장병과 피부병, 빈혈 등에 특히 효과가 있으며 철분, 칼슘, 불소 외에 9가지의 건강필수 원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종류굴과 연결되어 있는 폐금광 갱도 1천1백30m를 개발하고 진입로 1백98m, 광장 2천 5백여 m를 새로 조성하였다.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폐금광 갱동에는 5개의 주제로 나누어 공간을 분리 짜임새 있는 관광개발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타임터널, 도깨비 금광 등 인공전시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개발되었다.

화암동굴은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 33호로 지정(1980년 2월 26일)되어 있으며, 1922년 부터 1945년까지 금을 캐던 천포광산으로 연간 순금 22.904g을 생산하는 국내 5위의 금광이었던 곳으로 금광굴진중 발견된 천연 종유동굴과 금 광 갱도를 이용하여 [금과 대자연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개발한 국내 유일의 테마형 동굴이다.

천연 종유굴은 2,800㎡규모의 광장이고 굴 안에 높이 40m, 직경 100m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종유석이 있다. 관람길이는 1,803m로서 전체 관람구간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람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이다.

지방본부소식



지부소식

